

광양관광 멀티플랫폼 '광양시 관광협업센터' 개소

커뮤니티센터 1층에 사무실·회의실 등 갖춘 공유·협력의 장 "관광도시 도약 힘찬 걸음 내딛고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공유기반 구축을 위해 광양시 관광협업센터의 단장을 마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시는 최근 오후 2시, 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광양시 관광협업센터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해 진수화 광양시의회의장, 서인석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차장, 관광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진수화 광양시의회의장의 축사,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관광협업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관광협력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되었다. 센터는 총면적 364㎡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으며 광양시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등 지역의 관광조직이 입주할 예정이다.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협업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나들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광양관광 플랫폼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귀식 광양시 관광협의회장은 "지난해 광양시 관광협의회라는 인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관광협업센터 개소는 함께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광양관광의 밝은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광양관광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10월 (사)광양시관광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관



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디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협업센터 개소는 광양의 관광 관련 조직과 인체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

할 공간을 갖겠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관광상품 개발, 정책 발굴, 관광홍보, 관광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기능이 여기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어선어업분야 탄소 줄이자" 여수시, 친환경 장비 보급

여수시가 어가의 연료비 절감과 생산량을 증가,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시는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어선어업분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지원품목은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LED등(燈), 유류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방기 등) 등이다.

올해 8억원 투입 사업 추진 노후기관 대체·어선 안전 등 연근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안전장비 구입비용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시 수산경영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선어업분야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와 어가경영 개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9년에 130여 척, 5억 9천여만 원, 2020년에는 170여 척, 8억 원 상당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공장등록 기업체 실태조사 추진

공장등록 업체 현황조사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통해 기업지원 활용



순천시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1개월간 공장등록 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공장등록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업체 동향을 파악하여 각종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산업·농공단지 228개사, 개별단지 445개사 등 총 6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방문조

사를 통해 이뤄진다. 순천시는 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등의 일반적인 공장등록사항을 비롯해 휴·폐업 등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공장 이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무단폐업 및 진출한 공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공장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유해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 중 주암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는 담당공무원이 월 1회 이상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1년간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다. 농공단지 공장등록으로 각종 혜택만 누리는 업체를 배제하고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 기업체에 기회가 제공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업지원 등의 시책추진에 활용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내년 영농계획 미리 준비하세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접수

보성군은 이 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올해 사업 신청 분야는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 원예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이며, 신청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사

업 종사자 등이다. 2022년 분야별 주요사업은 농촌분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등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등이 있다. 식량분야에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라이프 설치·운영지원 등이 있고, 축산분야에서는 △스마트축산(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이 있다.

식품분야는 △GAP인증 및 이력추적 관리 유통화실화 지원,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이 있으며, 유통분야에서는 △스마트ICT융복합축산사업, △과실전생산물산지 기반조성사업, 원예분야 △시설원예현대화지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지원 등이 있다. 신청 분야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관련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 자체심사를 거쳐 전라남도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의결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고흥군은 지난 25일 고흥군청 흉양홀에서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기근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과단소장이 참석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 중 50건을 선별하여 사업들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한 주요 사업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어촌뉴딜 300 등 투자사업, ▲방조제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정년 농촌 보급자리조성 ▲권역단

위 거점 개발사업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원터 조성 등으로 지역성장, 관광,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졌다. 송 군수는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확보한 국비와 도비가 1조 5,818억 원에 달하고 「민선 7기」 동안 유지한 공모사업 총액이 3,500억 원이 넘는다"며, "어려게 확보한 사업비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물결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심2지구 상인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친환경 마스크